이슈리서치7.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2021.10.07. 아동복지연구소

코로나19로 일상적인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깊었는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년대비 증가해 염려하던 코로나19의 여파가 결국학습결손 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울신문, 2021.09.30.)¹⁾. 기초학력 미달이란 뜻에는 이 아이들이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 문해력이나 수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최근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잦아지면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해지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근원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언어 문해력이 기본 전제가 된다. 즉, 혼자서 교과서를 읽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자기주도 학습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커다란 고민에 빠졌다. 각종 공지사항을 가정통신문 형태나 단톡방 메시지로 전달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 내용을 잘 읽지 않거나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공지사항은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포스터나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시키려 애쓰고 있다.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하온 교사는 "아이들이 줄글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읽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읽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린다. 읽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지. 아예 읽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분명히 읽었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내용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공지사항이 있으면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전달하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길 때도 세 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짧게 끊어서쓴다. 줄글을 끝까지 참고 읽는 것도 문해력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들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BS 당신의 문해력(2021)』2)

2021년 5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발표한 〈Z세대 너를 알고 싶어!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은 2020년 일주일 평균 기준으로 인터넷을 27.6시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9년 17.6시간에 비해 무려 10시간이나 늘었다.³⁾ OECD(2018)⁴⁾는 최근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미래 아동·청소년의 중요한 인지적 기반으로 언어 리터러시⁵⁾, 수리 리터러시⁶⁾, 디지털 리터러시⁷⁾, 데이터 리터러시⁸⁾를

¹⁾ 학업성취도 '중위권 붕괴' 코로나發 학습격차 현실로(서울신문, 2021.09.30.)

²⁾ 김윤정 외(2021). EBS 당신의 문해력. 학국교육방송(EBS).

³⁾ 여성가족부(2021). 2021 청소년 통계. 통계청.

⁴⁾ OECD(2018), OECD Education 2030,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강조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조한 3R(읽기, 쓰기, 셈하기) 즉 언어, 수 리적 소양에 더해 디지털과 데이터 소양도 학생들이 역량을 발현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 제안한 것이다(김혜숙, 차현진, 유예림, 계보경, 한나라, 김은지, 2021)⁹⁾. 그러나 디지털 문해력의 바탕에도 어느 정도 수준의 언어적 소양 즉, 언어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에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언어, 디지털)를 살펴보았다.

OECD가 2021년 5월 발표한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15세 학생들은 인터넷 정보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 식별률이 47.4% 인데 반해 한국 학생들의 평균 식별률은 25.6%에 그쳤다. 디지털 기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에 넘쳐나는 가짜 뉴스를 접했을 때, 또는 피싱 메일을 받았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문해력'이다. 디지털 문명 덕분에 우리는 넘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불확실하고 모호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보를 명확하게 판단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BS 당신의 문해력(2021)』

※ 조사 개요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마이크로밀엠브레인 140만 패널 활용)

- 조사대상: 초등 5학년 ~ 고등 2학년 자녀와 그의 학부모

- 조사규모: 총 500명/250가구(95% 신뢰수준에서 ±4.4%p)

- 조사기간: 2021년 9월 10일 ~ 9월 16일(약 7일간 진행)

- 표본구성: 부모 vs 비교를 위해 각 300명씩 다음과 같이 세부할당 샘플링 함

(단위: 명)	대도시	그 외 지역	Total
자녀 초등5~6학년	60	60	120
자녀 중등1~3학년	130	130	260
자녀 고등1~2학년	60	60	120
Total	250	250	500

⁵⁾ **언어 리터러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형식과 상황에서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를 이해, 해석, 사용하고 창출하는 능력

⁶⁾ 수리 리터리시: 디지털 환경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수학 도구, 추리 및 모델링을 사용하는 능력

⁷⁾ **디지털 리터러시**: 전통적인 소양과 동일하게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상황에 적용되며, 새로 운 디지털 도구와 역량에 의존함

⁸⁾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읽기, 작업, 분석 및 데이터로부터의 논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⁹⁾ 김혜숙, 차현진, 유예림, 계보경, 한나라, 김은지(2021).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사례 및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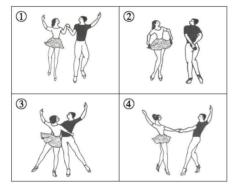
		가구 수	%
	전체	205	100.0
지역	대도시	125	50.0
시크	그 외	125	50.0
	자녀 초5~초6	60	24.0
자녀 연령	자녀 중1~중3	130	52.0
	자녀 고1~고2	60	24.0
부모 연령	30대~40대 초반	110	44.0
구 <u>포</u> 원당	40대 후반 이상	140	56.0
가구	500만원 미만	129	51.6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121	48.4
	상	89	35.6
자녀 주관적 학업 성적	중	134	53.6
	하	27	10.8

2. 조사 결과

- ≫ 언어(국어) 문해력은 성인과 아동이 비슷하게 나타남(정답자 비율 비슷)
- ≫ 몇몇 문제에서는 성인과 아동 모두 정답자 비율이 저조
 - <표5. 우체국 택표요금> 정답자 비율: 33.2%(성인) vs 29.6%(아동)
 - <표7. 세계시간> 정답자 비율: 58.0%(성인) vs 54.4%(아동)
 - 〈표11. 맞춤법〉 나중에 봬요/나중에 뵈요 정답자 비율: 28.4%(성인)vs27.6%(아동)

문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춤 동작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오른쪽 옆구리를 서로 붙이고 오른팔로 상대의 허리를 감싼다. 왼팔은 머리 위로 올린다.



< 1>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1-1	1) 오답	-	4(1.6)
정답 ⁻ 여부 _	2) 정답	250(100.0)	246(98.4)
	전체	250(100.0)	250(100.0)

(정답: 3번)

문2. 다음 부동산 정보를 보고 판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방이 세 개, 욕실이 두 개인 아파트이다
- ② 시세 정보는 약 1개월 간격으로 갱신된다
- ③ 3억원에서 6억원까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모두 변화가 없다
- ④ 2월과 3월 사이에 매매 가격이 1억원 정도 상승했다

〈丑2〉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1-1	1) 오답	22(8.8)	35(14.0)
정답 ⁻ 여부 _	2) 정답	228(91.2)	215(86.0)
	전체	250(100.0)	250(100.0)

(정답: 4번)

문3. 다음 청첩장의 내용을 잘 못 이해 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권찬기 씨와 김서경 씨가 결혼한다
- ② 결혼식은 12월 15일 토요일 정심시간에 한 다
- ③ 한마음예식장은 주차 공간이 충분하므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④ 6630번 버스를 타면 한마음예식장에 갈 수 있다

< 3>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1) 오답	4(1.6)	11(4.4)
정답 ⁻ 여부 _	2) 정답	246(98.4)	239(95.6)
	전체	250(100.0)	250(100.0)

(정답: 3번)

문4. 다음 가정통신문을 읽고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통신 18-12호

미세먼지를 조심하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미세먼지는 예년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귀가 후 손과 발을 씻기
- 2.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실외 활동 자제
- 3.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4. 실내외 청소로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제거
- 5. 실외로통하는창문및 출입문을닫아외부공기와접촉차단

2018, 3, 7, 00 초등학교장

- ①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손을 씻게 한다
- ② 채소 등 농산물은 익혀 먹는다
- ③ 거실 바닥을 자주 물걸레로 닦는다
- ④ 창문이 잘 닫혀있는지 확인한다

<班4>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1-1	1) 오답	20(8.0)	40(16.0)
정답 여부	2) 정답	230(92.0)	210(84.0)
-11	전체	250(100.0)	250(100.0)

(정답: 2번)

문5. 서울에 사는 철수는 울릉도에 사는 영희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선물의 무게는 5kg이며,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cm입니다. 철수가 지불해야 할 요금은 얼마입니까?

<우체국 택배 요금표>						
무게	2kg까[지]	5kg <i>까</i> }지	8kg <i>까</i> }지	10kg/ን}지		
(<u>ヨ</u> フ])	(60cm까ト지)	(80cm까지)	(100cm까지)	(120cm까지)		
동일지역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타지역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도서지역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 주의 사항:

- 1.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을 말함
- 2. 무게와 크기 중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해당하는 요금이 적용됨
- ① 5,000원 ② 6,000원 ③ 7,000원 ④ 8,000원

 < 5>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유효
 1) 오답
 167(66.8)
 176(70.4)

 오) 정답
 83(33.2)
 74(29.6)

 전체
 250(100.0)
 250(100.0)

(정답: 3번)

(정답: 2번)

문6. 다음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약 복용 시 알아야 할 기초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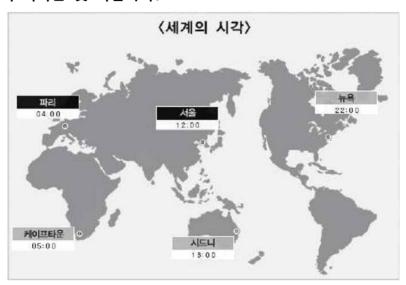
- (가) 약은 일반적으로 식후 30분에 먹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 (나) 기침약, 콧물약, 종합 감기약의 효과는 다 다르다. 어떤 약이든 자신의 증상에 맞는 구체적인 약효를 알고 복용해야 한다.
- (다) 약은 물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우유나 주스와 먹는 것은 약의 효능을 떨어드릴 수 있다.
- (라) 약국에서처럼 상온 보관하면 된다. 약에 따라서는 냉장고 안에 둘 경우 습기 때문에 변질되기도 한다.

- 6 -

- ① 모든 약은 식후 30분에 복용해야 한다
- ② 약은 우유나 주스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기침 감기에 종합 감기약을 먹으면 기침약을 먹은 것과 효과가 같다
- ④ 남은 약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 6>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1) 오답	29(11.6)	46(18.4)
유효	2) 정답	221(88.4)	204(81.6)
	전체	250(100.0)	250(100.0)

문7.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경기가 열린다면 현지 시각은 몇 시입니까?



① 오전 3시 ② 오전 6시 ③ 오후 6시 ④ 오후 3시

(정답: 4번)

〈丑7〉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1) 오답	105(42.0)	114(45.6)
유효	2) 정답	145(58.0)	136(54.4)
_	전체	250(100.0)	250(100.0)

문8. 다음 명함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면> <뒷면>



① 상품 가격 ② 상점 이름 ③ 상점 주소 ④ 상품 종류

(정답: 1번)

< 8>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1) 오답	5(2.0)	5(2.0)
유효	2) 정답	245(98.0)	245(98.0)
	전체	250(100.0)	250(100.0)

문9. 다음 공익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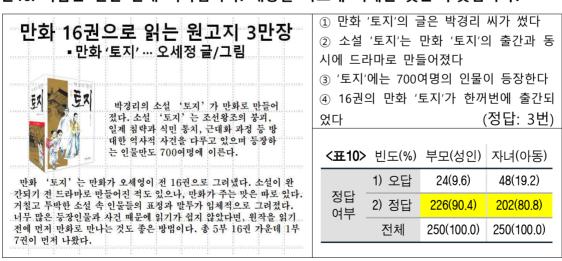


- 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 ②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 ③ 공공장소에서는 전화 예절을 지켜야 한다
- ④ 공공장소에서는 떠들지 말아야 한다

(정답: 1번)

〈丑9〉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1) 오답	4(1.6)	37(14.8)
유효 2) 정답	246(98.4)	213(85.2)	
	전체	250(100.0)	250(100.0)

문10. 다음은 신간 안내 기사입니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11. 다음 두 개의 단어 중에서 맞춤법이 맞는 표현에 표기(▽) 해주세요.

	vs		VS		
1)	안되	안돼	6)	나중에 봬요	나중에 뵈요
2)	왠만하면	웬만하면	7)	건드리다	건들이다
3)	왠떡이야	웬떡이야	8)	설거지	설겆이
4)	할께요	할게요	9)	어떡해, 어떻게 해	어떻해
5)	않되나요	안되나요	10)	내거	내 꺼

(정답: 파란색으로 표기된 단어)

<표11> 국어 맞춤법 정답여부

	(%)		부모(성인)	자녀(아동)
4	1 안되 VS 안돼 -	1) 오답	17(6.8)	26(10.4)
'		2) 정답	233(93.2)	224(89.6)
2	에미팅며 //오 에미팅며	1) 오답	97(38.8)	113(45.2)
۷	2 왠만하면 VS 웬만하면		153(61.2)	137(54.8)
3	왠떡이야 VS 웬떡이야	1) 오답	73(29.2)	100(40.0)
3	센틱이야 V3 센틱이야	2) 정답	177(70.8)	150(60.0)
4	할께요 VS 할게요	1) 오답	96(38.4)	105(42.0)
4	월께요 V3 월게요	2) 정답	154(61.6)	145(58.0)
5	OFELLO VO OFELLO	1) 오답	25(10.0)	33(13.2)
5 않되나요 VS 안되나요	경기나요 V3 인기나요	2) 정답	225(90.0)	217(86.8)
6	나중에 봬요 VS 나중에 뵈요	1) 오답	179(71.6)	181(72.4)
O	다중에 돼요 V3 다중에 되죠	2) 정답	71(28.4)	69(27.6)
7	건드리다 VS 건들이다	1) 오답	18(7.2)	41(16.4)
1	신트니다 V3 신글이다	2) 정답	232(92.8)	209(83.6)
8	설거지 VS 설거지	1) 오답	91(36.4)	76(30.4)
0	설계시 V3 설계시	2) 정답	159(63.6)	174(69.6)
9	1) 오딥 어떡해, 어떻게 해 VS 어떻해	1) 오답	71(28.4)	77(30.8)
9	어⊣에, 어륭게 에 V3 어롱에	2) 정답	179(71.6)	173(69.2)
10	내거VS내꺼	1) 오답	168(67.2)	170(68.0)
10	네기 V3 네 게	2) 정답	82(32.8)	80(32.0)
	전체		250(100.0)	250(100.0)

- ≫ 디지털 문해력은 세부 항목에 따라 성인과 아동이 다르게 나타남
- ≫ 아동은 디지털 문해력 중 '정서'적으로 더 친숙하고 더 적극 '참여'함
 - <정서> 1)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경험을 주고받는 것이 즐겁다: 50.8%(성인) vs 72.8%(아동)
 - <참여> 2) 나는 경험이나 느낌을 인터넷에 올려 친구들과 나눈다 : 36.0%(성인) vs 65.6%(아동)
- ≫ 반면 디지털 문해력 중 '자기조절' '보안' '비판적 읽기' 능력이 더 낮음
 - <자기조절> 2) 나는 놀 때와 공부(일) 할 때를 구분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 75.2%(성인) vs 56.0%(아동)
 - <보안> 1) 나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그 사이트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판단한다: 90.0%(성인) vs 60.4%(아동)
 - <비판적 읽기> 1) 나는 뉴스 기사가 최신의 것인지 확인한다
 - : 86.8%(성인) vs 45.6%(아동)
 - <비판적 읽기> 3) 나는 뉴스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
 - : 56.8%(성인) vs 37.6%(아동)

〈표12〉 디지털 문해력(생각, 행동)

(%)		부모(성인) 자녀(아동)			아동)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정서	1) 나는 인터넷에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즐겁다	107(42.8)	143(57.2)	52(20.8)	198(79.2)
	2) 나는 인터넷에 새로운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즐겁다	143(57.2)	107(42.8)	77(30.8)	173(69.2)
	3) 나는 인터넷에서 댓글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138(55.2)	112(44.8)	79(31.6)	171(68.4)
	4)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경험을 주고받는 것이 즐겁다	123(49.2)	127(50.8)	68(27.2)	182(72.8)
자기 조절	1) 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정한다	104(41.6)	146(58.4)	149(59.6)	101(40.4)

	2) 놀 때와 공부(일) 할 때를 구분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62(24.8)	188(75.2)	110(44.0)	140(56.0)
	1) 나는 친구들이 올린 소식을 인터넷에서 확인한다	102(40.8)	148(59.2)	54(21.6)	196(78.4)
참여	2) 나는 경험이나 느낌을 인터넷에 올려 친구들과 나눈다	160(64.0)	90(36.0)	86(34.4)	164(65.6)
	3) 나는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댓글을 쓴다	107(42.8)	143(57.2)	92(36.8)	158(63.2)
	1) 나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그 사이트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판단한다	25(10.0)	225(90.0)	99(39.6)	151(60.4)
보안	2) 나는 이메일이나 문자에 첨부된 파일을 열기 전에 안전한 것인지 확인한다	27(10.8)	223(89.2)	100(40.0)	150(60.0)
	1) 나는 뉴스 기사가 최신의 것인지 확인한다	33(13.2)	217(86.8)	136(54.4)	114(45.6)
	2) 나는 뉴스 기사가 게시된 웹 사이트의 주소를 확인한다	94(37.6)	156(62.4)	161(64.4)	89(35.6)
비판적 읽기	3) 나는 뉴스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	108(43.2)	142(56.8)	156(62.4)	94(37.6)
	4) 나는 뉴스 기사의 내용이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84(33.6)	166(66.4)	147(58.8)	103(41.2)
	5) 나는 뉴스 기사의 내용에 의심이 갈 경우 다른 자료를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59(23.6)	191(76.4)	134(53.6)	116(46.4)
	전체	250(1	00.0)	250(1	100.0)

≫ <표13> 아동은 성인에 비해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의 조심성이 더 낮음

≫ 〈표14〉 요즘 아동청소년들의 언어사용에 대해 어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함

- 3) 잘 모르는 신조어, 유행어가 많다: 92.4%(그렇다)
- 4) 비속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다: 92.4%(그렇다)
- 5) 청소년의 말투가 거칠다: 89.2%(그렇다)
- 7) 표준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다: 71.6%(그렇지 않다)

〈표13〉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대화

(%)	부모(성인) 자녀(아동)		아동)	
(70)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1) 일상 대화에 비해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25(10.0)	225(90.0)	82(32.8)	168(67.2)
2) 일상 대화에 비해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더 어렵다	54(21.6)	196(78.4)	117(46.8)	133(53.2)
3) 맞춤법에 맞지 않게 써도 된다	136(54.4)	114(45.6)	78(31.2)	172(68.8)
4) 늦은 밤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다	225(90.0)	25(10.0)	168(67.2)	82(32.8)
전체	250(1	100.0)	250(1	100.0)

〈표14〉 요즘 아동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어른들의 생각

빈도(%)	부모(성인)		
	아니다	그렇다	
1)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72(28.8)	178(71.2)	
2)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71(28.4)	179(71.6)	
3) 잘 모르는 신조어, 유행어가 많다	19(7.6)	231(92.4)	
4) 비속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다	19(7.6)	231(92.4)	
5) 청소년의 말투가 거칠다	27(10.8)	223(89.2)	
6) 외국어 단어를 섞어 쓰는 아이들이 많다	70(28.0)	180(72.0)	
7) 표준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다	179(71.6)	71(28.4)	
전체	전체 250(100.0)		

- ≫ <표15>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의 일상 언어생활에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함: 88.8%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 <표16>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2)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남용하여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37.4% (그렇다)
- >> 〈문18〉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70.9%) 〈표17〉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함(71.6%)

<표15>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요즘 아이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인터넷(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모든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언어

(%)	부모(성인)
1)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0(8.0)
2)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22(88.8)
3)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8(3.2)
전체	250(100.0)

<표16>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요즘 아이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한 어른들이 꼽은 이유

빈도(%)	부모(성인)
1) 비표준어 사용과 부정확한 발음, 잦은 오자와 탈자 출현 등으로 언어규범을 훼손하고 있다	66(29.7)
2)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남용하여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83(37.4)
3) 불필요하게 어려운 외국어, 한자어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여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축시킨다	12(5.4)
4) 특정집단만이 이해하는 방언, 신조어, 유행어 등을 남용하여 집단간 소통을	61(27.5)

있다	
전체	222(100.0)

〈표17〉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동의)

빈도(%)	부모(성인)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7(2.8)	24(0.4)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4(5.6)	21(8.4)
3) 보통이다	50(20.0)	50(20.0)
4) 대체로 필요하다	137(54.8)	470(74.6)
5) 매우 필요하다	42(16.8)	110(11.0)
전체	250(100.0)	

〈표18〉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어른들이 꼽은 이유

빈도(%)	부모(성인)
1)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7(70.9)
2) 언론으로서의 방송이라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51(28.5)
3) 기타	1(0.6)
전체	179(100.0)

- ≫ <표19> 성인(100.0%)과 아동(93.6%) 대부분 '독서' 필요성에 동의함
- ≫ <표20> 다음의 이유를 가장 많이 꼽음
 - 1) 사고(생각하는)의 힘을 키울 수 있다: 75.6%(성인) vs 51.7%(아동)
- ≫ <문21> 소수(16명, 6.4%)는 '독서'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 1) 정보나 새로운 지식은 다른 매체로(예: 인터넷)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추가 응답함: 12명(75.0%)

〈표19〉 아동청소년들에게 독서의 필요성(동의)

(%)	부모(성인)	자녀(아동)
1) 필요하다	250(100.0)	234(93.6)
2) 필요하지 않다	-	16(6.4)
전체	250(100.0)	250(100.0)

<표20> 아동청소년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빈도(%)	부모(성인)	자녀(아동)
1) 사고(생각하는)의 힘을 키울 수 있다	189(75.6)	121(51.7)
2)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8(19.2)	73(31.2)
3) 숙제와 시험 등 학교 공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9(3.6)	32(13.7)
4) 진로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1.2)	7(3.0)
5) 기타	1(0.4)	1(0.4)
전체	250(100.0)	234(100.0)

〈표21〉 아동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빈도(%)	자녀(아동)
1) 정보나 새로운 지식은 다른 매체로(예: 인터넷)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75.0)
2)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는 편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12.5)
3) 친구들과의 대화가 감정의 순화 및 진정에 더욱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12.5)
전체	16(100.0)

- ≫ <표22> 평소 독서량에 대해 더 많은 아이들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음
- ≫ <표23> 평소 가족, 친구 등과 책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하지 않음
- ≫ 〈문24〉 독서활동을 열심히 했던 마지막 시기로 '초등학교'를 많이 꼽았음
- ≫ <문25> 독서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장애요인)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됨
 - 1)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24.8%(그렇다)
 - 2)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22.8%(그렇다)
 - **4)** 휴대전화(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28.8%(그렇다)

≫ <문26> 많은 아이들이 독서 중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2) 책을 읽다가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 81.2%(있다)
- 3) 책을 읽었으나 이해가 되자 않은 경험이 있다: 82.8%(있다)

〈표22〉 평소 독서량(교과서, 학습참고서, 잡지, 만화 제외) 충분/부족

(%) 자녀(아동)	
1) 부족하다	114(45.6)
2) 보통이다	84(33.6)
3) 충분하다	52(20.8)
전체	250(100.0)

〈표23〉 평소 가족, 친구 등과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빈도(%)	자녀(아동)
1) 별로 이야기 나누지 않는다	135(54.0)
2) 보통 정도로 이야기 한다	77(30.8)
3) 자주 이야기 나눈다	38(15.2)
전체	250(100.0)

〈표24〉 스스로 생각하기에 독서활동을 열심히 했던 마지막 시기

빈도(%) 자녀(아동)	
1) 없음	14(5.6)
2) 초등학교 입학 전	30(12.0)
3) 초등학교	144(57.6)
4) 중학교	53(21.2)
5) 고등학교	9(3.6)
전체	250(100.0)

<표25> 독서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장애요인)

빈도(%)	자녀(아동)
1) 학원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62(24.8)
2)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57(22.8)
3) 텔레비전을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3(1.2)
4) 휴대전화(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72(28.8)
5)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15(6.0)
6)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14(5.6)
7) 학교도서관 등 책을 빌릴 곳이 없어서	2(0.8)
8) 책을 살 돈이 없어서	3(1.2)
9) 책을 읽을 만한 가정환경이 아니어서(집안일 돕기 등)	1(0.4)
10 부모님이 책 읽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3(1.2)
11)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11(4.4)
12) 기타	7(2.8)
전체	250(100.0)

<표26> 독서 중에 곤란했던 경험

HI II (0/)	자녀(아동)	
인도(%)	없다	있다
1) 책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	114(45.6)	136(54.4)
2) 책을 읽다가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	47(18.8)	203(81.2)
3) 책을 읽었으나 이해가 되자 않은 경험이 있다	43(17.2)	207(82.8)
전체	250(100.0)	

<표27> 독서 중에 부담감이 생긴 이유

(%)	자녀(아동)
1) 학업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	33(24.3)
2) 책 선정의 어려움	16(11.8)
3) 정독(완독)에 대한 압박감	30(22.1)
4) 어려운 단어로 인한 내용 이해의 어려움	38(27.9)
5) 시대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낯선 내용 이해의 어려움	15(11.0)
6) 독서활동 중 질문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부재(없음)	2(1.5)
7) 기타	2(1.5)
전체	136(100.0)

- ≫ 〈표28〉 어른들은 자신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받았던 국어교육에 대해 언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지만(36.4%)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34.0%)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음
- ≫ 〈표29〉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어른들은 요즘 우리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을 개선하고(34.8%) 방송・신문・잡지 등 의 대중매체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34.0%)고 밝힘
- >> 〈문30〉 아이들은 스스로 지금보다 책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학교와 부모님
 께 바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학교] 1) 학교도서관(도서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70.4%(그렇다)
 - [학교] 2) 학급문고에 책이 많으면 좋겠다: 69.2%(그렇다)
 - [학교] 3) 좋은 책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주면 좋겠다: 76,4%(그렇다)
 - [부모] 8) 평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56.0%(그렇다)
 - [부모] 10) 도서관과 서점을 부모님과 함께 이용하면 좋겠다: 57.2%(그렇다)

<표28> 자신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받았던 국어 교육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

(%)	부모(성인)
1) 언어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33(13.2)
2)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91(36.4)
3)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85(34.0)
4)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29(11.6)
5) 특별히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2(4.8)
전체	250(100.0)

<표29> 요즘 우리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안

빈도(%)	부모(성인)
1)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22(8.8)
2)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을 개선해 나간다	87(34.8)
3) 성인에게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3.2)

4)	·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85(34.0)
	5) 국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한다	23(9.2)
	6) 국가가 국어 사용의 표준을 제시한다	21(8.4)
	7) 특별히 방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2(0.8)
	8) 기타	2(0.8)
	전체	250(100.0)

<표30> 지금보다 책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이 학교와 부모님께 바라는 점

구분		자녀(아동)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1) 학교도서관(도서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15(.0)	59(23.6)	176(70.4)
	2) 학급문고에 책이 많으면 좋겠다	20(8.0)	57(22.8)	173(69.2)
학교	3) 좋은 책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주면 좋겠다	14(5.6)	45(18.0)	191(76.4)
<u>-</u> †₩	4) 독서 방법, 독후감 쓰기 등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50(20.0)	73(29.2)	127(50.8)
	5) 다양한 독서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32(12.8)	91(36.4)	127(50.8)
	6) 독서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	33(13.2)	81(32.4)	136(54.4)
부모	7) 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30(12.0)	102(40.8)	118(47.2)
	8) 평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24(9.6)	86(34.4)	140(56.0)
	9) 책을 더 많이 사주면 좋겠다	34(13.6)	98(39.2)	118(47.2)
	10) 도서관과 서점을 부모님과 함께 이용하면 좋겠다	31(12.4)	76(30.4)	143(57.2)
<u>전</u> 체			250(100.0)	